

종교 개혁의 핵심은 프로테스탄트 성경 확립

성경말씀: 시119:130

1517년 10월 31일 독일 성 어거스틴 수도회 수사 신부이자 신학 교수였던 마르틴 루터는 95개 조항으로 정리한 천주교회 개혁의 글을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붙였다. 종교개혁의 서막이 열린 순간이었다. 하나였던 서방 교회가 분열하여 현재의 천주교와 여러 개신교회로 나뉘는 사건이기도 했다. “종교개혁을 통해 1000년 동안의 중세 천주교 암흑시대에 온 유럽을 정신적으로, 정치적으로 지배하던 교황청의 절대적 권위가 무너졌다. 교황청의 권위에 도전한 프로테스탄트 정신은 개인 영혼의 자유, 인권, 자본주의의 윤리를 확산시키면서 산업혁명과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치관으로 뿌리내렸다.” 올해 기독교 뉴스에서는 ‘종교개혁 500주년’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언급됨 그런데 종교 개혁의 원인과 핵심이 무엇인지는 제대로 밝히고 있지 않다. 올해 들어 1월 8일에 <종교 개혁 500주년의 의미>, 10월 15일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과 이신칭의>, 10월 22일, <종교개혁 다섯 솔라의 의미>, 10월 29일 <종교 개혁과 개인주의/민주주의/자유시장 경제/법치주의>, 오늘 <종교 개혁의 핵심은 프로테스탄트 성경 확립>

성경의 역할

하나님의 인간 창조, 마귀의 개입, 인간 타락,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이 마귀에 의해 눈이 멀게 되면 우상을 섬긴다. 이런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다. 종교개혁 이전 온 세상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 사람들은 종교, 철학, 문학, 음악, 예술 행위를 한다. 아래에서 위로 가려는 시도 롬3:23,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사람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는 것 불가능 기독교와 타종교의 가장 큰 차이: 기독교는 계시 종교이다. 하나님과 구원에 대해 알려주신다.

그 계시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담은 책이 바로 성경이다. 다른 종교에는 이런 책이 없다. 오늘 말씀(시119:13):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고 그 빛이 단순한 자에게 깨달음을 준다. 예수님의 복음: 죄에 빠진 영혼이 마귀의 속박과 무지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는 것(요8:32) 이 일은 오직 진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1. 아들 하나님이 진리이시다(요14:6). 2.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다(요17:17), 예수님 승천 이후 우리 앞에 놓인 객관적 진리는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독자에게 주는 글, 혹은 서문> 10쪽: 성경을 읽어야 살 수 있다. 진리가 없이 어떻게 경건함(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일)이 있겠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어떻게 구원하는 진리가 있겠는가? 그리고 성경 기록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겠는가? 구원(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인간 해방), 진리,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 성경기록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할 수 있다(딤후3:15). 근심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며 무디어진 우리에게 자극을 주며 냉랭해진 우리 마음에 불을 당겨주는 것이 성경 기록이다. 툴레, 레게(Tolle, lege), 툴레, 레게! 집어서 읽으라! 집어서 읽으라! 성경을 읽으라.

성경은 어떤 책인가? 성경은 무기이다. 단순히 하나의 무기가 아니라 영적 싸움에 필요한 모든 무기이다. 바로 이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대적과 싸워 이길 수 있다. 성경은 채소가 아니라 나무이며 매달 새로운 열매를 내는 생명나무이다. 그 열매는 음식이 되며 그 잎은 약이 된다...성경은 묵은 전통에 맞서는 신선한 음식 저장고요, 해로운 이단을 예방하는 약국이며, 반역하는 영들을 다루는데 유용한 법전이요, 천박한 초보 원리들과는 비할 수 없는 값진 보고이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영생으로 솟아나는 가장 순수한 샘물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가!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책,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자인 책, 사도들이나 대언자들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혜로 기록된 책이다. 성경의 본질은 진실과 경건과 순수와 올곧음이며 그 모양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증언,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며 그 영향은 지각의 빛, 견고한 확신, 죽은 행실로부터의 회개, 생명의 새로움, 거룩함, 화평, 성령님 안에서의 즐거움이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보상은 이것이니 곧 성도들과의 교제와 하늘의 본성에 참여함과 썩지 않고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상속이다.

마귀가 하는 일

마귀는 창세 이후로 두 가지 일에 전념한다. 1. 메시아 방해, 2. 말씀 방해

메시아가 오는 것을 방해하고 그분이 왔을 때에도 그분을 쓰러뜨리려고 온갖 술수를 동원한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자 만세,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그분에게 옮기고 그분을 저주로 삼아 죄를 정죄하심. 그리고 죽음을 이기는 능력으로 그분을 부활시킴. 이로써 메시아를 대적하고 방해하려는 마귀의 일 완전 실패

그러나 신약시대 이후로 아직 자기에게 시간이 남은 때에 지옥에 갈 자들을 찾아 나섬

그가 해야 할 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경 전파를 막는 것, 성경을 부패시키는 것

고후2:17, 바울 당시에 이미 말씀을 부패시킨 자들이 등장함(AD 55년)

요한계시록을 마감하면서 하나님은 성경 변경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심(계22:18-19)

성경 번역

초대 교회가 형성되고 복음이 세상 곳곳에 전달되면서 성경이 각 나라 말로 번역되기 시작함

구약은 히브리 사람들의 성경, 주로 신약 성경이 번역됨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자필원본의 말씀이 아니라 각 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이 사람을 구원한다.

신약 시대 이방인들의 교회에서는 번역이 가장 중요하다. 각 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을 역본이라고 한다.

<킹제임스 역자들의 서문>: 번역이란 창문을 열어 빛이 들어오게 하는 작업이다. 번역은 껍질을 까서

우리가 열매를 먹도록 해 주며 휘장을 젖혀서 우리가 지성소를 들여다보게 해 준다. 번역은 우물의

뚜껑을 열어 우리가 물로 나가게 해 준다. 참으로 보통 사람들의 말로 [성경이] 번역 되지 않는다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두레박이나 물 길을 그릇이 없이 깊은 우물 옆에 서 있는 아이들과 같다.

하나님은 한 성경만 쓰셨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본들을 가지고 여러 나라에서 신약성경 번역, 페시타 역본, 구 라틴 역본 등

이러는 가운데 콘스탄틴의 기독교 공인, 정치와 종교의 혼합, 배교가 시작됨

마귀가 오리겐 같은 성경 변경자들을 사용하여 성경 부패 작업 시작

콘스탄틴을 통해 50여 개의 부패된 사본들을 만들어 전 지역에 배포함. 바티칸 사본과 시내 사본
이로써 주후 300년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 됨

다수 사본과 소수 사본: 현존하는 그리스어 사본 6,000개, 99% 다수, 1% 소수

이러는 가운데 천주교회가 시작되면서 어거스틴과 제롬이라는 천주교 성인들 등장

어거스틴은 천주교회가 세상을 장악하고 통치하는 신학 완성, 교황의 수위권 확립

제롬은 강력한 금욕과 고행을 통한 자기 부인과 성직자들의 독신생활, 마리아 숭배를 주장했다. 주후

382년경에 로마 교황 다마스스는 그에게 신약 성경을 라틴어로 다시 번역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그는 오리겐의 작품인 <70인역>을 이용하여 훗날 카톨릭 교회의 공식 성경이 된 라틴어 성경을 번역했

다. 이 일을 통해 그 당시에 이미 존재하던 '구 라틴어 성경' 즉 원래의 사본에 거의 일치하는 바른

역본이 궁극적으로 폐기되고 그의 '신 라틴어 성경'이 그것을 대체하게 되었다. 이것은 보통 라틴

벌게이트(Vulgate) 성경이라고 불리며 국내에서는 '불가타'로 불린다.

그 이후로 천주교의 세상 통치가 확고히 되면서 종교개혁까지 무려 1000년 이상 암흑시대가 지속되었다.

1. 성경이 존재했지만 라틴어 성경이라 무용지물, 2. 라틴어를 읽는 사람도 구원 거의 불가, 중요

용어를 카톨릭 식으로 바꾸어 버림, 3. 바른 성경과 교리를 지키려는 수많은 성도들 죽음 당함

천주교회는 서방의 로마를 중심으로 번역을 누림, 서방 교회라 불림

반면에 콘스탄티노플의 동로마 제국은 점차 쇠퇴

이 교회는 천주교회 소수사본이 아니라 다수 사본만 사용

1453년에 이슬람 세력인 오스만투르크가 콘스탄티노플 점령, 기독교 학자들이 자유를 찾아 서쪽으로

피신하면서 다수 사본 그리스어 신약성경을 가지고 감, 많은 다수 사본이 서유럽에 유입됨

사본들은 많아도 신약 전체를 다 담은 사본은 없음, 이것들을 모아서 성경 번역 대본을 만들어야 함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본문(Text)라고 함

하나님의 그릇 에라스무스(1466-1536)의 등장, 당시 유럽 내 최고의 그리스어 학자

비잔틴 동방 제국의 그리스어 사본들 본문 작업, 천주교 소수 본문 배제

천주교회를 제외한 대다수 평민들이 쓰던 그리스어 본문, 전통 본문, 공인 본문 편집
1516년에 그리스어/라틴어 대역성경 출간

그러자 사람들은 에라스무스의 대역성경과 천주교회의 라틴어 성경을 대조할 수 있게 됨
곧바로 하늘과 땅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됨, 아니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영어의 'penance'와 'repentance'는 의미가 서로 굉장히 다르다. 전자는 천주교회의 참회나 고해성사 후의 고행을 가리키고 후자는 신약 성경의 회개를 가리킨다. 누가복음 13장 3절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는 말씀의 경우 과거 천주교 라틴 성경에는 고행해야 한다는 'penance'로 표현되어 있지만 에라스무스는 회개를 뜻하는 'repentance'라고 번역하였다. 아무리 고해성사 후 고행해도 죄는 해결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180도 돌이키는 회개, 즉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구원의 필수 조건이다.
천주교회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고해 절차 요구, 그러나 이제는 에라스무스 덕분에 개인이 자기 마음의 변화인 회개와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직접 나가게 됨

에라스무스는 또한 마리아 숭배 배척

누가복음 1장, 가브리엘의 수태고지, 라틴 성경, 오 은혜가 가득한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니 네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도다(눅1:28). 마리아는 은혜가 가득한 저장 창고, '마리아를 통해 예수께', 킹제임스: 크게 호의를 입은 자여, 우리와 동일한 자, 평생 동정녀가 아니라 처녀
마태복음 1장 25절: 만아들을 낳을 때까지, 천주교 성경: 아들을 낳을 때까지

행8:37, 흥정역, 다른 성경, 천주교의 영아 세례 구절 삭제, 약5:16, 너희 잘못들을 고백하고
벧전2:2, 흥정역, 다른 성경, 요일5:7, 흥정역, 다른 성경

결국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 다수 공인 본문은 중세 천주교를 타파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였다.

유럽 국가들의 성경

1517년, 마르틴 루터, 95개조, 1521년 보름스 제국 회의, 바르트부르크로 피신, 1519년 판 에라스무스 그리스어 성경을 사용해서 1522년 9월 신약성경 출간, 장터의 평범한 아낙네들이 쓰는 말로 번역
루터교가 확산되면서 독일어를 쓰는 사람들의 표준어 정착, 표준 성경

<루터의 밧모섬>, 목원대 역사학과 황대원 교수의 글

루터가 번역한 신약 성경은 서기 1세기에 신약 성경이 처음 편찬되었을 때 쓰인 언어인 그리스어를 기반으로 해서 당대 최고 지성이었던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가 1516년 새롭게 출간한 '그리스어 판본 성경'을 원본으로 활용해 번역한 것이었기에, 천 년이 넘도록 사용되면서 불가피하게 여러 문제점을 안게 된 [천주교회의 라틴어] 불가타 성경의 오류를 피할 수 있었다.

천주교 사본에서 나온 성경은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고 다수 본문 종교개혁 성경이 바르다는 말
그 당시 세상은 스페인과 프랑스와 영국이 지배, 스페인어와 불어 그리고 영어 성경 필요

스페인에서는 레이나와 발레라가 역시 에라스무스의 성경으로 레이나 발레라 성경 발간,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킹제임스 성경', 레이나 역시 카톨릭 수도승, 종교 개혁 소식 듣고 프로테스탄트 회심, 스페인에서 도망함, 1569년에 레이나 성경, 그 뒤 그의 친구 발레라가 다듬어서 완성
프랑스의 올리베망 성경: 종교 개혁자 칼빈의 사촌, 역시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 성경, 1535년 영어 성경: 루터 당시 틴데일, 그의 평생의 꿈, "하나님께서 목숨을 살려주신다면 앞으로 몇 년 내에 쟁기를 끄는 소년이 교황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게 할 것이다."

1522년 루터 성경 입수, 번역 착수, 1526년 신약 성경 발간, 구약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화형대에서 처형됨, 커버데일 등이 마무리했고 결국 1611년 킹제임스 성경 안에 6-70%가 반영됨
성경 번역자로서 틴데일의 고민: 하루 종일 번역 용어 선정

히12:2, Looking unto Jesus the author and finisher of our faith;

킹제임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NIV, NASB 등은 the author and perfecter of our faith

믿음의 주,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 이리 되면 믿음이 불완전하다는 말

이탈리아 디오다티 성경, 체코 성경 등이 모두 공인 본문 성경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가져간 성경 역시 제네바 성경, 그리고 후에 킹제임스 성경

대영제국의 확장: 인도,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아프리카, 모두 에라스무스 성경

프랑스와 스페인이 치리한 지역도 모두 에라스무스 성경

결국 1516년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 성경 발간 이후 온 세상의 성경은 공인 본문 성경

천주교 성경은 바티칸 도서관과 천주교회 안에만 머물, 원래 천주교는 성경 금서 목록, 안 본다.
개신교 성경이 들어가는 곳마다 미신과 무지가 깨어짐: 개인의 자유, 복음 선포, 영혼 구원, 민주주의,
자유 시장 경제 체제, 인간의 보편적 가치 부흥

위기를 느낀 천주교회는 드디어 370년이 지난 1881년에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리라는 영국 성공회 학자들을
이용하여 영국개역성경 출간, 이후로 미국 표준역 등장, 전혀 안 팔림

마지막 시대, 적그리스도의 세상, 천주교의 부흥, 1970년 이후로 천주교회 득세, NIV 등이 시장 잠식
그러나 여전히 킹제임스 성경이 가장 독보적인 성경, 50-100억 부 팔림, 수백 개 언어로 번역됨

우리나라 상황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복음을 가져오던 때, 1881년의 영국개역성경 출간 이후

이유는 모르지만 그 이후로 우리말 성경은 천주교 소수 본문에 근거하여 번역됨
개역성경이라는 독보적인 성경 발간(웅장하고 우아함),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혼 구원의 선물을 주었다.

나와 내 부모,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대개 개역성경으로 구원받음

그러나 태생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성경 번역 본문에는 프로테스탄트 다수 본문, 천주교 소수 본문
개역성경은 번역의 대본이 천주교 소수 본문, 그러므로 다른 현대역본들과 마찬가지로 마르틴 루터 성경,
틴데일 성경, 제네바 성경, 킹제임스 성경과 여러 면에서 다르다. 심지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도
킹제임스 성경으로 만들어짐.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의 철학: <서문> 선한 크리스천 독자여, 진실로 처음부터 우리는 나쁜 역본에서
좋은 것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결코 [다른 역본]을 반대하려 한 적이
없고 다만 '좋은 것을 더 좋게 만들든지' 혹은 많은 좋은 것들 중에서 '하나의 으뜸가는 좋은 것'을
만들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노력한 바이며, 그것이 우리의 목표였습니다.

이들의 겸손한 정신에서 나온 작품이 바로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다.

우리도 이와 동일한 정신으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여 우리말 흠정역 성경으로 내놓는다.

1. 과거의 성경을 부정하지 않는다. 극단주의자들의 주장: '개역성경은 사탄성경이다.' 난센스
2. 우리는 '좋은 것을 더 좋게 만들든지' 혹은 많은 좋은 것들 중에서 '하나의 으뜸가는 좋은 것'(one principal good one)을 만들려고 생각한다.
3. 그 작품이 바로 우리 손에 들린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다.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특징

1. 에라스무스의 공인 본문,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 성경,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성경
2. 우리말 문법에 맞으며 장터의 평민들과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번역
3. 책을 제외하고는 무료 배포: PDF 파일, 성경 읽기 앱, 성경 소프트웨어
4. 지금까지 5판, 번역 후 꾸준한 교정 작업, 2-3년 뒤 마제스티 판(6판) 최고 성우 사용 성경 낭송,
성경 본문과 낭송을 같이 볼 수 있는 앱, 유튜브 등에서 볼 수 있게 한다.

결론

적그리스도의 때가 다가온다. 미신과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진리의 말씀
시119:130, 그 진리는 종교 개혁자들이 택한 다수 사본에 고스란히 들어 있다. 에라스무스 본문
총신대 총장 역임 정성구 박사님, "종교개혁의 핵심은 종교개혁 프로테스탄트 성경 확립이다."
이 성경이 개인 영혼의 구원, 올바른 신약 교회, 자유 민주주의 자유 시장 경제, 법치주의, 인류의 보편적
가치 추구 함양.

나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먼저 성경, 성경 강해, 그 뒤 신약 교회